

#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및 의사결정 참여의 변화

-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

## The Change of Agricultural Labor Participation and Decision-Making Involvement of Rural Women in Korea

-from 1960s to 1990s-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정복지학전공

교수 조희금\*

School of Social Welfare, Division of Family Life Welfare,

Taegu University

Professor : Cho, Hee-Keum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hange of agricultural labor participation and decision-making involvement of rural women in Korea from 1960s to 1990s. For analysis of these changes, I used the data surveyed and collected by different researchers during those times. During last 40 years, rural society and the mode of agricultural production rapidly chang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industry. Agricultural labor participation of rural women increased since the mid 1970s. Their agricultural labor expanded into full ranges of farming. Their decision-making involvement also expanded into all divisions of farming. However, they did not have decision making power as much as they contributed to farm labor. The expansion of rural women's labor within the sphere of farm production has not substantially altered the decision-making power structure within the farm household.

▲ 주요어(Key Words) : 농촌여성(rural women), 농촌여성의 지위(status of rural women), 농업노동 참여(participation of agricultural labor), 의사결정 영역(division of decision making), 의사결정권(power of decision making).

## 1. 서론

### 1. 문제제기

우리나라 농업은 전통적으로 가족원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소규모 경영으로 생계유지가 기본인 비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의존해 왔다. 1960년대 이후 정부가 주도한 수출주도형 산업화과정에서 농촌의 젊은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공장노동자로 흡수되어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촌의 인구구조는 젊은이가 부족한 불균형 상태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농촌에 남겨진 기혼여성은 농업노동을 하지 않

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 이제 농촌에서 여성노동력은 중요한 노동자원이 되었다.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참여 증가는 농촌의 새마을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1970년대 중반 이후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집안일을 전담하며 바깥일인 농업에서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농촌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은 급격히 변화하여 집안일은 물론 논농사를 포함한 농업의 전 영역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등 농촌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는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더욱이 농촌이 소득증대를 위해 미작중심의 전통농에서 복합영농과 상업적 농업을 확대하면서 여성노동력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정부 이후 강조되는 가족농 육성정책(김정호, 1998)은 농촌의 여성

\* 주저자 : 조희금(E-mail : hkcho@taegu.ac.kr)

노동력을 전제로 하는 농업정책으로, 갈수록 농업노동에서 차지하는 여성노동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화와 함께 농촌여성들은 그 이전까지 전통적으로 주어져 왔던 사적인 재생산 영역인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농업생산이라는 공적 영역의 농업노동에 참여함으로써 노동부담이 과중하게 되었다.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참여는 양적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참여 유형도 변화하여 농업의 전 영역, 농사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동안 이들의 노동참여 증가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는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의 한 요소인 노동에 대한 대가는 임금소득으로 주어진다.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비자본주의적인 생산방식에 의존해온 우리나라 농업은 무급 가족종사자인 가족원, 특히 여성의 노동에 대해 임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 자급자족적 성격이 강했던 과거의 농업과는 달리 최근의 농촌은 다양한 형태의 상업적 농업을 하고 있고 농업소득을 획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참여에 대한 보수는 별도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농가의 농업소득 자체가 작아서 농가의 누구도 농업노동에 대한 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인 측면도 있으나, 더 중요한 이유는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인 농촌에서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조희금, 1998, 42; Gills, 1999, 196-197). 만일 농촌여성들이 농업노동 참여 증가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면, 이들은 자신의 노동 증가에 대한 보상을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이나 가정 내 의사결정권의 향상 등 비물질적인 측면에서 보상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농민의 사회적 지위가 낮으며, 농촌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더 낮다. 농촌에서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조직을 제외하면 여성은 어떤 사회적 조직에서 지도자의 역할이나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에 가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 농촌여성들이 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낮으며 개인적으로 경제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조희금, 1998, 49-50; Gills, 1999, 196-202). 그러므로 이들의 경제적 지위 역시 낮다. 또 농촌여성들은 농업교육기회나 농업의 변화로부터도 소외되어 여성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생산자로서의 지위도 더 악화되었다고 평가한다(한국여성개발원, 1997).

그렇다면, 농촌여성들의 농업노동 참여 증가는 이들의 의사결정권 향상에 기여했는가? 일찍이 부부간의 권력관계를, 가정생활 관련 사항들에 대해 부부 중 누가 최종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측정한 연구는 1960년대 미국의 Blood와 Wolfe에 의해 시도되었다. 즉

부부간의 권력관계는 부부간에 행해지는 의사결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남편과 부인 사이 입장의 우위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농촌여성의 지위에 관심을 가진 많은 선행연구들은 이들의 가정 내 의사결정 참여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농촌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정도를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각 연구의 연구 수행 시점에서 농촌여성이 수행한 농업노동 참여정도와 의사결정 참여 정도만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난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참여와 의사결정권의 변화와의 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난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참여변화가 그들의 가정 내 의사결정 특히 농업에 관련된 의사결정권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기 위해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농촌여성의 농업노동의 참여변화와 의사결정 참여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농촌여성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농촌과 농업생산체계의 변화를 고찰하고, 다음으로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기여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 또 이러한 변화와 상응하는 농촌여성의 가정 내 의사결정 참여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농업의 역할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짐에도 불구하고 농촌여성의 노동부담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받고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참여변화는 어떠한가?

1-1. 농가의 노동투하량 변화를 통해 본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참여변화는 어떠한가?

1-2. 농업노동시간의 변화를 통해 본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참여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농촌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변화는 어떠한가?

2-1. 농촌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영역의 변화는 어떠한가?

2-2. 농촌여성의 의사결정권의 변화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는 농촌여성의 노동참여와 의사결정 참여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다

음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농촌여성의 노동참여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농림부의 「농림통계연보」에서 농가의 노동투하량에서 차지하는 여성들의 노동참여 비율 변화를 분석하고, 농촌진흥청의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들의 농업노동시간 변화를 분석하였다. 의사결정 참여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자료는 1960년대부터 조사된 자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960, 70년대의 자료는 개인 연구자의 자료를 모두 이용하였고, 1980년대 이후는 조사대상의 선정이나 조사방법에서 상대적으로 보편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유관기관의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시계열적 변화를 조망하고자 하는 연구목적 때문에 2차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조사방법이 다른 2차 자료의 비교에서 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농림통계연보」: 농림부에서 매해 발행하는 농업관련 제반 통계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자료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농가노동투하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농가노동투하량은 매해 농가에서 농업에 투입한 총노동량을 가족노동, 고용노동, 품앗이노동, 축력 및 동력 등의 항목별로 나누어 각각에 투하된 노동량을 노동능력시간으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2)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분석 보고서」: 농촌진흥청에서 1966, 1979, 1983, 1988, 1993, 1998년에 조사한 농가 주부와 남편의 생활시간을 분석한 것이다. 1966년의 조사에서는 농가의 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부부모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이 조사의 특징은 전국 농촌을 농업유형별로 평야, 중간, 산간지대로 나누어 각 지대별로 마을을 정하고, 각 마을에서 대상가구를 정하여 각 가구에 조사원이 상주하면서 1일 생활시간을 미리 작성된 조사표에 기입하는 관찰조사법을 사용하고 있다. 조사대상 농가는 주로 수도작을 중심으로 하는 미백농가로 농사계절에 따른 생활시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농번기는 5월 중순, 농한기는 2월 중순경에 조사하고 있다. 다만 1993년의 조사에서는 미백농가와 함께 과수, 축산, 시설원에 등의 농가도 조사하였다. 조사된 생활시간 중 가사노동시간은 의생활생활관리, 식생활관리, 주생활관리, 가족시중, 가정관리, 구매 및 기타로 나누었고, 농업노동시간은 논일, 밭일, 양축, 영농준비, 논밭으로의 이동시간, 수매 및 판매, 그리고 겸업으로 나누었다. 그 가운데 겸업은 1998년 조사부터 농외소득시간으로 분리해서 조사하고 있다.

3) 의사결정 참여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표 6>에 나타나 있다.

### III. 농촌여성의 농업노동참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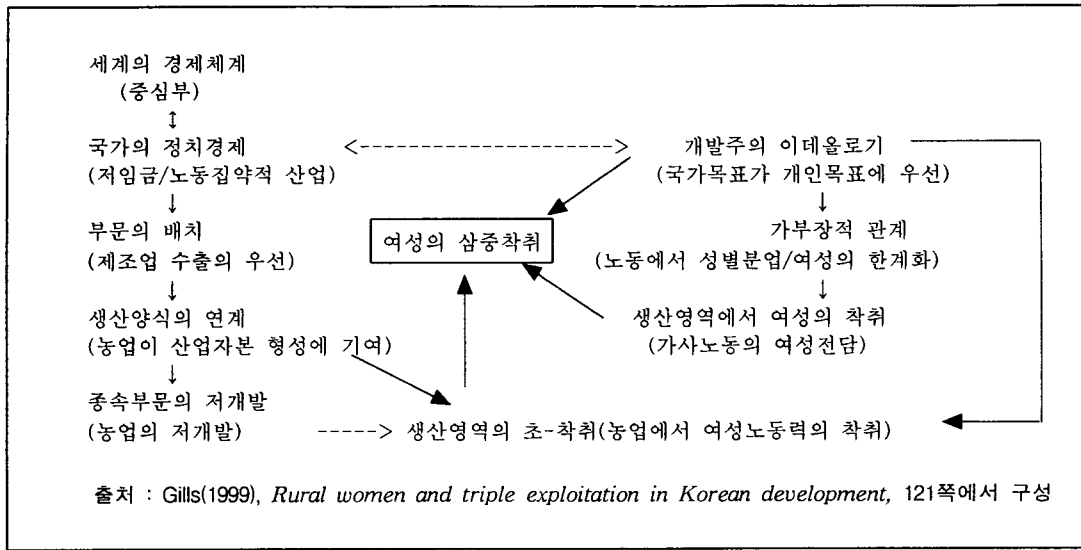
#### 1. 농촌사회와 농업생산체계의 변화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참여 증가와 농업노동 참여 증가에 따른 지위의 변화는 농촌사회의 변화 및 농업 생산체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196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는 동안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구조나 농업생산체계가 어떤 변화를 겪어 왔고, 그 가운데 농촌여성의 역할 및 지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다.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 계획은 수출지향적 공업화 정책으로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심화시켰다. 60년대 농촌은 도시의 공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저곡가정책으로 농촌노동력의 대량 유출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이다. 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자립과 농촌여성들의 역할이 증대하고, 복합영농의 육성이라는 농업정책의 변화를 가져온다. 복합영농은 농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상업농시대를 열게 되고 이를 통해 농가소득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과 함께 농가경제의 화폐화가 진행된다. 또 농촌의 공업화를 통한 농업기술의 도입을 추진한다. 농촌여성들은 70년대를 거치면서 농업노동 참여가 증대하는데, 이는 농사일 전반에 대한 참여로 나타나고 특히 농촌의 품앗이나 고용노동 등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조형, 1981; 김주숙, 1993; 조관일, 2000).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개방농정 정책은 1980년대 중반부터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으로 구체화되어 농촌사회와 농업생산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농산물수입의 개방으로 인해 주곡생산이 격감되고 농가부채가 증가하여 농촌사회는 파멸해 갔다. 1993년 UR협상이 타결되고, 농산물수입 개방에 대한 대응으로 시설원예나 축산업 등 전업농의 육성과 농업의 규모가 커지는 농업경영구조의 전환을 가져왔다. 즉 시장판매를 중심으로 한 상업농업이 크게 확대되고, 상업농업의 확대는 농촌여성의 노동형태에도 영향을 미쳐 농한기가 없이 일년 내내 농사일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노동강도도 증가하게 되어 여성들의 노동부담이 증가하였고, 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여성들의 농외취업도 증가하였다(김주숙, 1993; 조관일, 2000).

농촌사회의 변화는 이 과정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농촌여성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분석에서 조형(1981)은 60-70년대 농촌의 모든 변화과정에 농촌여성들이 참여하여 농업노동 참여를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뿐 아니라 새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여 농촌여성들의 역할이 활발해지고 다양해 졌으나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80년대 들어오면서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참여정도를 감안할 때, 농촌여성의 지위를 여성농민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김주숙(1993)도 농촌여성의 지위가



<그림 1> 농촌여성의 삼중착취 개념모델

그들의 역할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의 발전모델에서 농촌여성의 지위를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한 Gills(1999)는, 한국의 경제개발과정은 세계경제에 편입하기 위한 것으로 이 시기 국가 전략은 농업부문의 저개발로 이어져 농업은 종속적인 위치로 떨어지게 되고, 여기서 농촌여성은 국가의 수출주도형 산업화와 가부장제적인 이데올로기, 생산영역에서의 차별에 의해 3중의 착취를 당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Gills의 개념모델(Gills, 1999, 119-121)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농업노동에 참여하는 농촌여성의 연령구조에 따른 비율을 보더라도 농촌의 변화와 농촌여성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면, 농업에 참여하는 여성의 절대수가 1980년이래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연령도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 농업노동에 참여하는 농촌여성들의 연령은 절반 이상이 50대이며, 1998년에는 2/3이상이 50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여성들의 수나 연령에서 볼 때 남겨진 여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노동의 부담이 더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 농업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연령별 분포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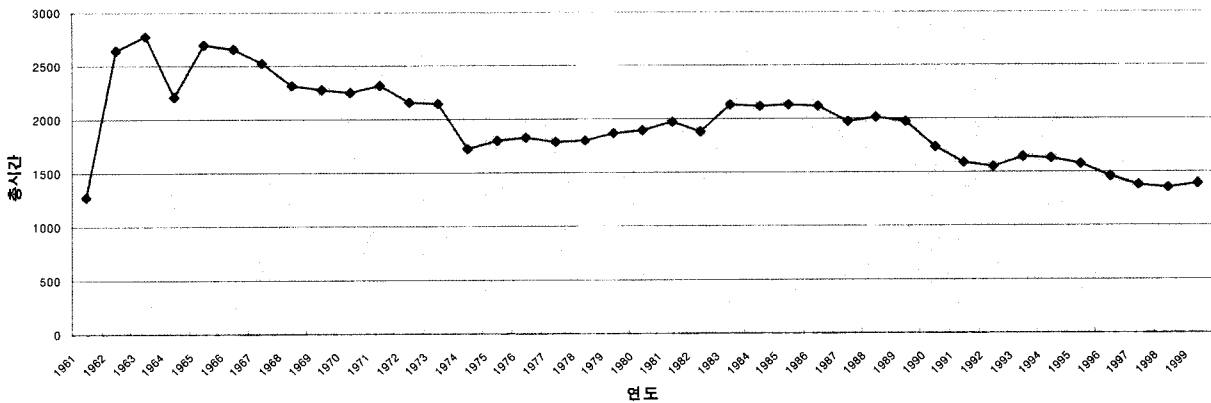
	1980	1985	1990	1995	1998
15-29세	326(16)	151(9)	65(4)	22(2)	21(2)
30-49세	1,067(52)	795(49)	585(39)	363(33)	322(29)
50세 이상	642(32)	662(41)	844(56)	722(65)	765(69)
계	2,035(100)	1,608(100)	1,494(100)	1,107(100)	1,108(100)

출처 : 한국여성개발원(1999), 「1999여성통계연보」, 200-201쪽에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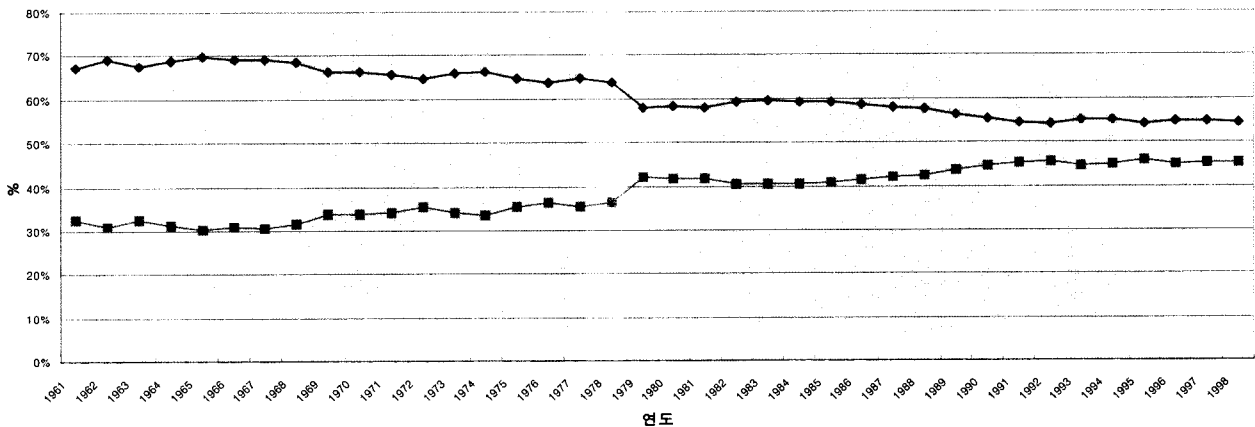
2. 노동투하량의 변화를 통해 본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참여

농촌여성들의 농업노동 참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농가의 노동투하량 변화를 통해서 농촌여성들의 농업노동 참여 변화를 분석한다. 농림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농가의 노동투하량은 농업에 투자된 노동력을 투하시간으로 측정된 통계자료로 본 연구에서는 1961년부터 1999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했다. 농가의 연중 노동투하량은 농가 가구당 농업노동에 들어간 노동력을 5가지 노동 원천으로 나누어 그 노동능력을 환산시간으로 나타낸 것이다. 즉, 가족노동, 고용노동, 품앗이, 축력과 동력의 투입을 시간으로 계산한다. 그 가운데 농업노동에 투입된 동력을 시간으로 환산하기 시작한 것은 1975년부터이다.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참여를 전체 노동투하량의 변화에서 살펴보기 위해 먼저 연도별 총노동투하량의 변화를 살펴본다.

<그림 2>에서 보면, 1961년은 하반기만을 조사한 것으로 다음연도의 절반 수준이지만, 1960년대 후반까지는 대체로 연간 2500시간 이상이 농업에 투입되고 있다. 1960년대 말부터 노동투하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초반까지는 연간 2000시간이 투입되고, 그 후 점차 감소하여 1800시간 정도를 유지하다가 1980년대에는 다시 약간 증가한다. 그러나 1990년대가 되면 연간 1500시간대로 떨어지고, 1999년에는 1960년대 초반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연간 1400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처럼 농가의 노동투하량이 감소한 것은 전체 노동투하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족노동 시간이 1960년대 초반의 2000시간 정도에서 1990년대 후반이 되면 1000시간 정도로 감소한 것과 고용노동이나, 품앗이 노동 역시 1960년대 초반의 20-25%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하



<그림 2> 연도별 총노동투하량



<그림 3> 가족노동의 남녀비율

졌다. 축력은 1960년대의 연간 100시간에서 1990년대 후반에는 단 1-2시간 정도로 감소하고 있어서 농업에서 축력은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인력과 축력의 감소는 일부 동력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데, 1975년부터 통계에 들어간 동력은 1994년 연간 182시간을 정점으로 그 후 약간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농가의 노동투하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여성의 노동참여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다음의 <표 2>, <그림 3>, <그림 4>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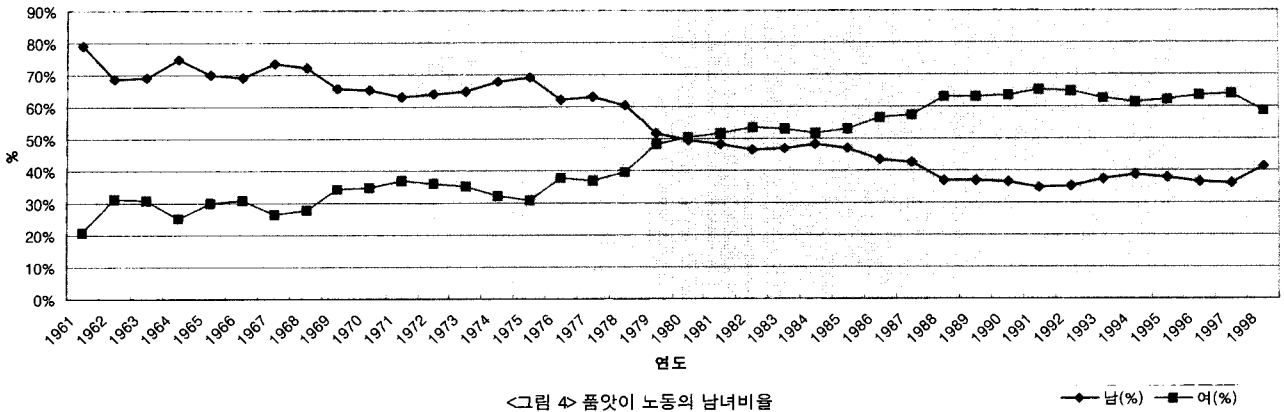
<표 2>에서는 축력과 동력을 제외한 가족노동, 고용노동, 품앗이의 합계와 각 투하량에서의 남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1960년대에는 전체 노동투하량의 30%미만인 여성노동 비율은 197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0년에는 가족노동과 고용노동에서 40%이상, 품앗이에서는 50%이상의 노동력을 투하하여 남성 노동력의 비율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여성의 비율은 점

점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에는 가족노동의 45%, 품앗이의 60%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제 농촌에서 여성노동력의 비중은 남성과 거의 같은 수준이며, 농촌 경제를 받치고 있는 두 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농가별 연간 농업노동 투하량의 구성 및 추이 (단위 : 시간, %)

연도	노동투하시간 <sup>a</sup>	가족노동		고용(품앗)노동		품앗이 노동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65	2584.74	69.7	30.3	82.5	17.5	70.2	29.8	72.5	27.5
1970	2154.83	66.2	33.8	74.0	26.0	65.2	34.9	67.4	32.4
1975	1708.47	64.6	35.4	75.0	25.0	69.3	30.7	66.7	33.3
1980	1814.00	58.3	41.7	57.4	42.6	49.5	50.5	57.4	42.6
1985	2018.95	59.3	40.7	51.0	49.0	46.9	53.1	57.2	42.8
1990	1592.69	55.4	44.6	44.6	55.4	36.5	63.5	52.7	47.3
1995	1439.22	54.1	45.9	-	-	37.9	62.1	51.8	48.2
1997	1315.69	54.7	45.3	-	-	35.9	64.1	52.1	47.9
1998	1239.32	55.5	44.5	-	-	41.3	58.7	53.4	46.6

<sup>a</sup>축력과 동력을 제외한 노동투하시간임  
출처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4> 품앗이 노동의 남녀비율

<그림 3> 가족노동의 남녀 비율 변화와 <그림 4> 품앗이 노동의 남녀 비율 변화를 통해서 농가 노동투하량 가운데 여성노동의 증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맥농가 부부를 주 조사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노동시간에서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을 하고 있다.

<표 4> 농가부부의 노동시간

단위: 시간.분(%)

<표 3> 처(여자)의 주요한 농사작업 참여정도

연도	1965	1985
모심기	새참, 점심 등 보조정도	작업단. 품앗이에의 참여 등 주된 노동력이 됨
밭매기	적극적으로 참여	적극적으로 참여
논매기	새참, 점심 등 보조정도	모든 제조작업에 참여, 제조제 살포
방제	참여하지 않음	직접 참여하거나 남편과 협조
벼베기	새참, 점심 등 보조정도	벼베기. 벼 묶는 작업. 건조 운반에 모두 참여
타작	남편의 보조정도로 참여	나락 담기. 벧단 운반. 벧짚 처리 등에 참여

출처 : 최재석(1988), 「한국농촌사회변동연구」, 115쪽

이러한 결과는 1965년과 1985년 사이 농촌여성의 농사작업 참여정도를 분석한 최재석(1988)의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표 3>에서 보면,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965년 농촌여성의 농사작업 참여는 밭농사를 제외하면 논농사에는 식사를 준비하거나 남편의 보조정도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20년 후인 1985년이 되면, 밭농사는 물론 논농사의 거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농사에 있어서도 주된 노동력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 노동시간을 통해서 본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참여

다음은 농업노동시간 변화를 통해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참여정도를 살펴본다. 분석자료인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분석 보고서」는 전통적인 영농형태인 미

	연도	농번기		농한기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농업노동 시간	1966*	-	5.23	-	1.31
	1979	12.33(56.2)	9.46(43.8)	3.32(70.0)	1.31(30.0)
	1983	11.28(56.3)	8.54(43.7)	1.59(77.3)	.35(22.7)
	1988	10.25(58.1)	7.30(41.9)	3.23(71.0)	1.23(29.0)
	1993**	11.35(58.2)	8.24(41.8)	3.51(69.4)	2.12(30.6)
	1998	11.02(55.4)	8.52(44.6)	4.49(62.0)	2.57(38.0)
가사노동 시간	1966	-	7.56	-	7.56
	1979	.16( 5.6)	4.28(94.4)	2.26(26.2)	6.51(73.8)
	1983	.23( 7.9)	4.29(92.1)	.40(10.8)	5.32(89.2)
	1988	.38(11.5)	4.52(89.4)	1.22(18.7)	5.56(81.3)
	1993**	.21( 7.4)	4.34(92.6)	1.11(17.7)	5.30(82.3)
	1998	.15( 5.9)	3.58(94.1)	.43(12.1)	5.11(87.9)
총노동 시간	1966	-	13.19	-	9.27
	1979	12.49(47.4)	14.14(52.6)	5.58(38.9)	9.22(61.1)
	1983	11.44(46.7)	13.23(53.3)	2.29(28.9)	6.07(71.1)
	1988	11.03(47.2)	12.22(52.8)	4.45(39.4)	7.19(60.6)
	1993**	11.56(48.0)	12.58(52.0)	5.02(40.2)	7.42(59.8)
	1998	11.17(46.8)	12.50(53.2)	5.32(40.5)	8.08(59.5)

\* 1966년은 농가주부의 생활시간만을 조사했기 때문에 남편의 시간이 없음

\*\* 영농형태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그 가운데 미맥농가 부부의 생활시간임

출처 : 농촌진흥청,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구조분석」, 각 연도에서 재구성

<표 4>에서 농촌여성의 노동시간 변화를 보면, 먼저 농번기의 농업노동시간은 1966년 5시간 23분에서 1979년 9시간 46분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는 앞의 노동투하량 변화에서 볼 때, 가족노동에서 여성의 노동비율이 40%를 넘고, 품앗이 노동에서는 여성의 노동투하율이

50%이상으로 남성의 비율을 상회하는 시점이다. 그 이후 농업노동시간은 다소 감소하여 1983년 하루 8시간 54분, 1988년 7시간 30분을 소비하다가 1993년부터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1998년에는 농업노동시간이 1일 8시간 52분으로 전체 농업노동시간의 45%를 여성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한기에는 여성의 농업노동시간이 남성에 비해 감소하나 이 시기에는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여성이 담당하므로 총노동시간은 훨씬 길다. 가사노동시간을 합하게 되면 농번기, 농한기를 불문하고 여성의 노동시간이 길다. 여기서 농번기와 농한기의 개념은 미맥을 주로하는 전통농에서는 뚜렷하나, 1980년대 이후 증가한 채소나 과일 등 비닐하우스의 특작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농지역에서는 그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즉 상업농은 농사가 1년 내 지속되는 농업의 주년화(周年化)가 이루어진다.

농한기 상업농지역의 여성노동력은 남성보다 훨씬 기여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조희금, 1989), 1993년 농촌진흥청의 조사는 이처럼 상업농이 증가한 경향을 반영하여 조사대상을 영농형태에 따라 미맥농가와 과수·축산·시설원에 농가로 나누고, 이들 부부의 생활시간을 별도로 조사하였다. 미맥농가와 달리 과수·축산·시설원에 농가의 영농활동은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으므로 1년중 1계절만을 조사한다고 밝히고 있다(농촌진흥청, 1994, 8-9). 이들 부부의 노동시간은 <표 5>에 나타나 있다.

<표 5> 과수·축산·시설원에 농가 부부의 생활시간  
단위 : 시간 .분(%)

	과수		축산		시설원에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총노동시간	12.53 (54.0)	11.01 (46.0)	12.17 (51.0)	10.59 (49.0)	12.51 (54.0)	11.12 (46.0)
농업노동시간	8.25 (43.0)	10.32 (57.0)	6.48 (40.0)	10.18 (60.0)	9.38 (47.0)	10.58 (53.0)
가사노동시간	4.28 (91.0)	0.29 (9.0)	5.29 (89.0)	0.41 (11.0)	3.13 (89.0)	0.24 (11.0)

출처 : 농촌진흥청(1994),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구조분석」, 83쪽

<표 5>에서 보면, 상업농가의 연중 노동시간은 미맥농가의 농번기 노동시간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축산 농가보다는 과수나 시설원에 종사하는 농가의 총농업노동시간이 길고, 여성의 농업노동시간도 길다. 시설원에 농가 여성은 총농업노동시간의 47%를 분담하고 있어서 분담비율이 가장 높다.

이처럼 여성의 농업노동 기여는 농가 노동의 투하량 면에서나 1일 농업노동시간의 측면에서 볼 때, 1970년대 말부터 크게 증가하여 40%이상을 차지하고 1990년대에 들어오면 45%이상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정도의 농업노동 기여는 이제 농촌에서 여성의

노동기여가 없이는 농업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IV. 농촌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의 변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참여라고 할 때 이는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와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참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사결정 과정이란 의사결정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는 것에서 그 의사결정에 대한 행위를 취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일련의 감각적, 인지적, 신체적 상호작용이고(Danes & Rettig, 1993), 반면에 의사결정의 결과란 누가 마지막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즉 선호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실제 행동의 측면과 영향 유형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다(Godwin & Scanzoni, 1989; Danes & Fitzgerald, 1999). 의사결정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의 절차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과정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인 결과를 구분하여 조사하기도 하고, 특별히 과정과 결과를 구분하지 않고 주로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한 것만을 의사결정 참여로 연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선행연구들에서 연구된 농촌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는 주로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한 참여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촌여성의 가정 내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연구는 농촌여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영역을 구분하여 가정생활과 영농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에 부인이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는가에 집중되어 있다. 또 농촌가정에서 여성의 가정 내 의사결정 참여는 이들의 지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여성의 지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삼기 위하여 이들의 의사결정 참여정도를 분석하기도 한다.

농촌여성들의 의사결정권은 삶의 질이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주부가 주로 결정하거나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주부참여형의 의사결정형태를 갖는 주부들이, 주로 남편이나 시부모 또는 자녀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부들보다 삶의 질을 더 높게 인식하며(조희금, 1986), 생활에서의 만족도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경혜 외, 1993). 또 부부간에 의사결정의 일치가 잘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경북농촌진흥청, 1994), 의사결정 참여가 많을수록 여성이 자신 명의의 자산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희금, 1998). 농촌여성의 의사결정에 관한 이들 연구의 초점은 가정생활과 영농에 관한 의사결정에 부인이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는가 하는 것과, 농촌여성의 그 동안의 역할증대가 의사결정권이라는 지위향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이한기, 1977; 김주숙, 1982; 최재석, 1983; 조희금, 1986; 한국여성개발원, 1987; 김종숙 외, 1992; 한경혜 외, 1993; 경북농촌진흥청, 1994; 한국여성개발원, 1997).

다음에서는 농촌여성들의 의사결정 참여 변화를 살펴

&lt;표 6&gt; 농촌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영역

연구자 (기관)	조사시기	조사대상지역	조사대상자(가구)수 (조사방법, 응답자)	조사 내용
최재석	1968	경남북, 충북, 전북, 경기 등	200가구 (면접법, 부인)	중요재산의 매매, 농번기 농사분담, 부식내용, 부조액 결정의 4문항
이한기	1977	경기도 일부	144명 (표준화면접법, 부인)	소액물품구입, 혼분식, 집치장, 가정교육, 자녀수 결정, 주요가구 구입, T.V프로그램 선택 등 가정관련 9문항, 발작물의 선택, 발작물의 판매, 일꾼 고용, 주요농장비 구입, 신상품 도입, 비료·농약 구입의 영농관련 6문항, 부조액 결정, 토지매매, 금전거래 등 경제관련 3문항 총 18문항
한국여성개발원	1986	제주도 제외 전국	2,048명 (표준화면접법, 부인)	품종의 선택, 농지의 구입과 매각, 농기계 구입, 영농자금 대부의 영농관련 4문항, 생활용품 구입, 부엌 및 주택개량, 자녀의 학교 및 배우자 선택 등 가사관련 5문항 총 9문항
농촌경제연구원 (김종숙, 정명채)	1992	충남지역 도시근교, 평야 및 중산간지역	121가구 (표준화면접법, 부인)	지출계획 수립 등 경제관련 6문항, 식료품, 내구재 구입 등 생활자재 구입 2문항, 자녀교육 1문항 등 가정생활 관련 3문항, 노동력 조달, 작물의 판매, 농사시기 결정, 농사용자재 구입, 작물 품종선택, 농지의 구입 및 매각 등 영농관련 6문항 총 18문항
한국여성개발원	1997	충남지역 중산간 및 평야지역	119명 (표준화면접법, 여성)	작물선택, 경지구판매, 임대차계약, 비료·농약·농기구 구입, 농기계구입, 영농자금대부, 작목반·영농조합가입, 농사일정, 품사기, 농산물판매, 판매수입소비비용도 등 영농관련 11문항
농림부	1999	광역시, 특별시, 제주도 제외 전국	1,352명 (설문조사법, 여성)	농사일정 짜기, 품종선택, 영농자재 구입, 외부인력 고용, 농산물 판매, 농지매매 등 영농관련 6문항, 영농자금 관리, 생활자금관리, 저축가입, 영농자금 차입, 생활자금 차입 등 경제관련 5문항 총 11문항

보기 위해 먼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영역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하는 것과 여러 의사결정 영역 가운데 특히 영농영역의 의사결정권의 변화는 어떠한지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은 가정 내 역할이었기 때문에 가정 내 역할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대체로 여성에게 주어져 왔다. 그러나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 때 의사결정권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증가된 노동 기여에 대한 대가와 연결시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 농촌여성들의 의사결정을 조사한 연구들 가운데 선정하였다. 각 연구들은 조사대상이나 조사항목, 조사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조사항목의 차이는 그 시기 농촌여성들의 의사결정 실태를 반영한다고 보아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또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은 남편, 주로 남편, 부부공동, 주로 부인, 부인의 5개 범주로 나눈 경우와, 부부공동 범주를 설정하지 않고 4개 범주로 나눈 경우가 있으며, 기타 가족원을 넣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남편과 주로 남편을 남편으로, 부인과 주로 부인을 부인으로 묶어서 분석하였다.

### 1. 의사결정 참여영역의 변화

<표 6>에서 농촌여성의 의사결정영역에 관한 선행연

구들을 분석해 보면, 의사결정 영역을 가정생활 영역, 영농관련 영역, 그리고 경제관련 영역 등 크게 3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다. 1968년 농가주부의 의사결정을 연구한 최재석(1973)은 전체 4문항 가운데 영농과 관련해서 '농번기 농사분담' 1문항, 가정생활관련 1문항, 경제관련 2문항을 조사하고 있다. 영농관련 의사결정 영역이 농사분담에 관한 내용 1문항에 불과한 것은 이 시기 농촌여성들은 영농에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에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의사결정을 조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77년 조사에서 이한기(1977)는 농가주부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총 18개의 의사결정 영역가운데 영농관련 6문항, 소액물품의 구입 등 가정생활관련 9문항, 부조액 결정 등 경제관련 3문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영농관련 영역으로는 발작물의 선택, 발작물의 판매, 일꾼 고용, 주요농장비 구입, 신상품 도입, 비료·농약 구입 등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농촌여성들이 참여하는 영농분야의 의사결정 영역이 농사의 전 영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때 이미 농촌여성들의 농업노동참여가 농사의 전 분야에 걸쳐 증가되었음을 의사결정 영역의 확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시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농업노동 투하량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넘어서고, 품앗이 노동에서는 남성 노동력의 비율보다 높아진 시기이다. 그러나 여성의 의사결정 영역이 영농관련 전 영역으로 넓어지기는 하였으나 아직은 여성이 주로 참여했던 분야인



<표 7> 농업에 관한 의사결정권의 변화

단위 : %

조사시기 (연구자)	1968 (최재석)				1977 (이한기)			1986 (한국여성개발원)			1992 (농촌경제연구원)			1999 (농림부)		
	남편	부부 공동	부인	기타	남편	부부 공동	부인	남편	부인	기타	남편	부인	기타	남편	부부 공동	부인
농사일정	-	-	-		-	-	-	-	-	-	76.7	16.8	6.5	59.1	30.0	9.2
품종(밭작물)선택	-	-	-		45.8	28.5	25.7	74.7	16.2	9.1	77.1	16.2	6.7	67.2	23.6	7.2
농지(재산)매매	75.5	12.5	5.0	7.0	77.8	20.8	1.4	81.6	10.4	8.0	79.2	11.9	8.9	62.3	30.9	3.9
농사분담(고용)	67.5	15.0	16.0	1.5	78.5	17.4	4.2	-	-	-	71.8	21.7	6.5	39.3	26.4	32.4
농기계(자재)구입	-	-	-		84.7	14.6	0.7	80.6	10.1	9.3	75.7	16.8	7.5	73.7	15.7	8.7
농산물(밭)판매	-	-	-		62.5	24.3	13.2	-	-	-	74.3	19.1	6.6	52.6	29.6	15.8

밭작물의 선택이나 판매 등 밭농사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에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으며, 1986년 조사도 영농관련 분야와 가정생활관련 분야로 나누어 품종의 선택, 농지의 구입과 매각, 농기계 구입, 영농자금 대부 등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 농촌여성의 의사결정 영역 가운데 가정생활영역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92년 조사에서는 영농관련, 경제관련 영역의 문항이 각각 6문항인데 비해 가정생활 영역은 3문항만을 조사하고 있다. 1999년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농림부의 조사에서도 가정생활영역의 문항을 제외하고 농사일정 짜기, 품종선택, 영농자금 구입, 외부인력 고용, 농산물 판매, 농지매매 등 영농관련 6문항과 영농자금 관리, 생활자금관리, 저축가입, 영농자금 차입, 생활자금 차입 등 경제관련 5문항을 합하여 총 11문항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조사에서는 가정생활영역을 제외하고 영농분야의 의사결정 참여만을 다루고 있는데, 영농분야를 작물선택, 경지구관매, 임대차 계약, 비료.농약.농기구 구입, 농기계 구입, 영농자금 대부, 작목반, 영농조합가입, 농사일정, 품사기, 농산물 판매, 판매수입소비용도 등 11개 영역으로 상세히 나누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이 여성의 농업참여에 관한 것을 다루고자 했기 때문에 의사결정 영역도 영농분야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 역시 농촌여성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증가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영농분야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확대는 농촌여성들의 농업노동참여 확대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농촌여성들의 의사결정영역 가운데 농가의 자금관리에 관한 경제관련 영역의 의사결정 참여가 중요한 항목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처럼 농촌여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영역에 관한 조사들을 분석해 보면, 초기에는 농촌여성의 의사결정 영역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가정생활영역에 관한 내용은 점차 줄어들고, 농사관련 영역과 재산관리 등 경제

생활에 관한 영역으로 의사결정 영역이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농촌여성들이 농가에서 차지하는 농업노동자로서의 지위가 변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역시 농촌여성의 의사결정 연구에서 영농관련 의사결정을 중시하고 있는데, 1980년대 조사(Rosenfeld, 1985)에서 가정생활영역은 '주요 가계 기구의 구입', '집수리의 시기', '부부의 농외취업 여부' 등 3문항인데 비해, 영농관련 영역은 '토지를 사고 파는 일', '토지를 빌리는 일', '주요 농기구의 구입', '생산 작물의 결정', '생산물의 판매', '새로운 생산방법의 시도', 등 6문항을 조사하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Danes 등(1999)도 1990년대 후반 들어 미국 농촌여성들의 가정생활과 영농분야에 걸친 의사결정 가운데 특히 경제적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즉 이들은 '가계부채 기록하는 일', '돈을 대부 받는 일', '농업에 관한 고지서를 납부하는 일', '토지를 사고 파는 일', '투자분야를 결정하는 일', '생활비를 배분하는 일', '각종 고지서를 납부하는 일' 등으로 나누어서 의사결정 참여 정도를 조사하였다.

## 2. 농촌여성 의사결정권의 변화

1960년대 미국의 Blood와 Wolfe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부부간의 권력관계를 측정하였다. 가정생활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부부 중 누가 최종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부부간의 권력관계는 부부간에 행해지는 의사결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사결정을 할 때 남편과 부인 사이 입장의 우위가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조사를 통해 이들은 부부간의 의사결정 유형을 자율형, 남편우위형, 부인우위형, 부부공동형으로 구분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가정에서 여성들의 의사결정권이 도시나 농촌을 불문하고 상당히 증가해서, 많은 여성들이 가정 내 의사결정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가정 내 권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에는 의문을 가진다. 왜냐하면 오히려 귀찮은 집안 일은 부인이 알아서 하고 정작 중요한 결정은 남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사영역의 의사결정권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가정 내의 권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박민자, 1992).

농촌의 경우는 도시와 달리 가정생활영역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의 의사결정권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이들의 농업노동 참여 증가와 연결되어 중요하다.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참여와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농촌 여성들은 자신들의 노동참여 정도에 상응하는 만큼의 의사결정권을 갖거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주숙, 1992; 김중숙, 정명채, 1992; 한경혜, 장미나, 1993; 박성자, 1996; 한국여성개발원, 1997; 정기환, 1997).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농촌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권의 정도가 이들이 농업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이전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또는 농업노동 참여가 증가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변화는 어떠한지에 대한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에서 이들의 의사결정권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각각의 조사는 조사방법과 조사의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와 단순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의사결정영역에서 참고로 했던 1997년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는 개방농정체제에서 여성의 농업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조사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어 의사결정권의 변화라는 전반적인 추세와 다른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또 조사에 따라 부부공동 결정의 항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영농영역에서 남편이 부인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 동안 조사된 농촌여성의 영농에 관련된 의사결정 가운데, 대표적인 항목들을 중심으로 의사결정권의 변화를 보면 <표 7>과 같다. 농사일정에 관한 결정은 1990년대 이전의 조사항목에는 들어있지 않았는데, 이는 부인의 의사결정 참여가 낮고 남편의 결정권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92년 조사에서는 남편이 주로 결정하는 비율이 76.7%이던 것이 1999년 조사에서는 59.1%로 남편 단독 결정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부인의 결정권 및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1999년에는 30%가 농사일정을 부부공동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하였다.

품종의 선택은 발작물의 선정인가 일반 농사작물의 선정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발작물의 선정을 조사한 이한기(1977)의 조사에서는 부인의 결정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주로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이 25.7%이고 부부공동의 비율도 28.5%로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높다. 이

러한 이유는 70년대 중반까지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는 주로 발작물의 경작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물의 선택이 발작물이 아니라 일반작물의 선택을 조사한 80년대 이후의 조사에서는 부인의 결정권이 낮아지고 남편의 단독결정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90년대가 되면서 점점 남편 단독결정이 줄어들고 부인이나 부부공동 결정의 비율이 늘어난다.

농지나 재산을 매매하는 일은 농촌여성의 결정권이 가장 낮은 영역 중의 하나이다. 이는 농촌 가정에서 농지나 재산을 소유한 여성의 비율이 아주 낮으므로(김중숙 외, 1992; 조희금, 1998), 그 재산의 처분권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농지매매에 대해서는 조사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일관성 있는 변화를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남편의 단독결정에서 부부공동 결정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사일을 분담하거나 일꾼을 고용하는 일은 1960년대까지는 농업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농촌여성의 주된 일 중의 하나였다. 그러므로 60년대 조사에서도 부인의 결정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이었다. 그러나 특히 농촌에서 여성의 고용노동 비율이 남성보다 높아지는 90년대 이후가 되면, 농사일 할 사람을 교섭하는 일은 부인이 유리하고 이에 따라 부인의 결정권이 더 커져서 농업에 관한 의사결정권 가운데 부인의 결정권이 가장 큰 영역이다.

농기계나 농자재의 구입에 관한 결정은 60년대 조사항목에는 없던 것으로, 영농관련 영역 가운데 남편의 결정권이 커서 여성들의 농업노동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주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 남편 단독결정의 비율은 1977년의 84.7%에서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에도 남편의 단독결정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여성들의 농업노동 참여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생산수단 구입 등의 농사에 중요한 결정에서는 아직도 배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농산물의 판매는 발작물의 판매를 주로 결정한 70년대의 결정에서는 부인의 결정권이 높았으나, 일반 농산물의 판매에 대해서는 90년대 이후가 되어서야 조사되었으며 남편의 단독결정권이 높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이 되면 남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부부공동결정의 비율이 증가한다.

이상에서 나타난 농촌여성들의 영농에 관련된 의사결정권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농촌여성들의 의사결정권이 아직도 매우 낮다고 보는 해석과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김이선(한국여성개발원, 1997, 134-135)은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도 영농분야에 대한 농촌여성의 의사결정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특히 생산수단인 농기계의 구입 및 농지의 처분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남편 혼자 결

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여성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생산자로서의 지위가 오히려 더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또 Gills(1999, 127-128)는 우리 나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촌여성들의 노동부담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성별노동분담에서 평등한 쪽으로 나아가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이 더 중속되어 가는 쪽으로 변화했으며, 또 대부분의 여성은 생산수단인 토지에서 격리되어 있고 의사결정과정의 통제력도 크지 않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정기환(1997; 125-127)은 농촌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에서 영농분야에 대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가 낮다고 해석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그는 캐나다 농가의 자료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농촌여성이 농업경영의 각종 의사결정에서 크게 소외되었다기 보다는 의사결정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시각으로 보아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농촌여성이 가지는 의사결정권의 변화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농촌여성들의 농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영농영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차이는 여성이 농업에 참여한 형태나 참여정도, 또 농업의 생산체계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미작 중심이던 60,70년대 여성은 밭농사에 주로 참여하여 이에 관한 결정권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에 비해, 과수나 시설원예 등 상업농이 보편화되어 경제의 중심이 미작에서 과수나 시설채소 등으로 변화되면서 밭작물에 대한 결정권이 남편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여성들이 농촌의 고용노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일꾼을 교섭하는 일을 주로 여성이 결정하지만, 농지나 재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여성들의 농지나 재산매매에 대한 권한과 농기계 등 영농자재 구입을 결정하는 권한은 적다. 전반적으로는 농업에 대한 여성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의사결정권이 증가하고, 특히 90년대 후반이 되면 전반적으로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일치형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농촌의 여성들이 그들이 기여하고 있는 농업노동의 참여정도와 비교하면, 제한적인 분야의 의사결정권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196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기간 동안 농촌여성들의 생활은 어떤 변화를 겪어 왔는가를 이들의 노동참여 증가와 이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사결정 참여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 것으로, 이런 변화를 농촌사회 및 농업생산체계의 변화와 연결지어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지난 40년간 우리 사회 및 경제구조는 크게 변화하고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농업은 점점 그 지위를 상실해 갔고, 도시와 농촌의

생활격차는 심해져서 농촌은 점점 살기 어려운 곳이 되었다. 농촌에 남은 여성들은 농업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대가는 주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농촌여성들은 우리 사회의 큰 특징인 산업화과정에서 도입된 근대기술의 이익에서도 배제되었는데, 왜냐하면 여성들은 가장 노동집약적인 일을 담당하므로 근대기술이 발달시킨 농기계는 남자들의 일을 대체하는데 기여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1960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는 동안 농촌여성들의 농업노동 참여는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촌여성의 역할을 증대시켰으며, 복합영농을 표방한 상업농 중심의 농업생산체계는 상업농을 주로 하는 지역에서 농촌여성의 노동력을 농한기 없는 노동으로 만들었다. 1980년대가 되면서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참여는 품앗이 노동에서 남성보다 많이 하고, 가족노동의 비율도 점점 증가하였다. 여성들의 농업노동 참여가 본격화한 70년대 후반부터 농촌여성의 농번기 농업노동 시간은 가사노동시간보다 훨씬 길며, 1년 내 총 노동시간은 남편의 그것보다 길다.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개방농정과 전업농 육성정책은 농촌의 화폐경제를 더욱 진전시켰으며, 농업의 생산성은 떨어져 농가부채는 증가하고, 농촌은 피폐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여성의 유입이 끊긴 농촌여성들은 노령화하여 이들이 느끼는 노동부담은 그 강도가 더 커졌다.

농촌여성들의 영농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는 이들의 농업노동 참여 증가와 연결시켜 파악할 수 있다. 농촌여성들의 전반적인 의사결정 참여영역은 농업노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농업에 관한 전 영농분야로 확대되었다. 이는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참여 확대가 이들을 여성농업인이라는 전문적인 농업종사자의 지위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영농분야에 대한 농촌여성의 의결정권의 변화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농업전반에 걸쳐 남편 단독결정 비율이 낮아지고, 부부공동이나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그러나 영농분야 가운데서도 농지나 농기계 등 생산수단의 구입과 처분에 관한 결정이나 재배작물의 선정 및 농사일정을 정하는 등 농업의 고유한 부분에 대한 결정권은 아직도 남편의 단독결정 비율이 높았다. 셋째, 여성의 농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농사의 성격이 변함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었다. 예를 들면, 농가의 상업농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여성의 주요 영역이었던 밭작물의 선정이나 판매에 여성의 결정권이 높았으나, 시설원예 등의 밭작물이 경제작물로 중요해지는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이에 대한 여성들의 결정권이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여성들의 노동참여가 증가하는 것과는 별도로 의사결정권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보면 농촌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는

그들의 노동참여 증가에 따라 의사결정 영역이 농업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의사결정권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남편 단독결정이 감소하고 부부 공동결정이 증가하는 것은 가정의 의사결정 구조가 부부합의에 의한 것으로 바람직한 면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농촌여성들의 노동참여에 상응하는 만큼 농업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전체 농업노동의 45% 정도를 담당하는 90년대 후반에도 여성들의 농기계나 농자재의 구입, 농지의 매매 등 중요사안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남편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시계열적인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2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조사방법이 아닌 조사결과를 비교하는 것에서 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 접수일 : 2001년 11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1년 12월 18일

#### 【참 고 문 헌】

- 경상북도 농촌진흥원(1994). 농촌여성의 역할구조와 가족주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보고서.
- 김정호(1998). 가족농 육성정책의 방향과 과제,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주최. 가족농의 바람직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주제발표문
- 김중숙, 정명채(1992). 농촌여성의 의식변화와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주숙(1992). 농촌여성과 일-그 체계와 보상-. 한국농촌의 여성과 가족. 서울: 한울아카데미.
- 농림부(1999).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농촌진흥청(1979, 1984, 1988, 1994, 1998).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분석 보고서.
- 박민자(1992). 부부관계의 평등성,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박성자(1996). 여성농업인 현실과 지방정부의 정책과제. 경북대학교. 경북지역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정책방향. 2-33.
- 이한기(1977). 농촌가정내 부인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9(1), 56-67.
- 정기환(1997). 농가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관일(2000). 우리나라 농촌여성의 역할변화에 관한 사회경제적 연구. 강원대 박사학위논문
- 조형(1981). 농촌사회의 변화와 농촌여성. 한국사회개발연구(V).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조희금(1986). 농촌주부가 인지한 삶의 질에 관한 연구-경상북도 지방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가정생활연구 1, 29-43.
- 조희금(1996). 경북지역 여성농업인들의 노동실태와 경제적 지위.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경북지역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정책방향. 69-86.
- 조희금(1998). 농촌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41-54.
- 한국여성개발원(1987). 농촌여성의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1997). 개방농정체제에서 여성의 농업참여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1999). 1999 여성통계연보.
- 최재석(1975). 한국농촌사회연구. 서울: 일지사.
- 최재석(1988). 한국농촌사회변동연구. 서울: 일지사.
- 한경혜, 장미나(1993). 농가주부의 의사결정 참여, 역할분담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4(1), 45-56.
- Danes, S.M. & Fitzgerald N.(1999). Sociodemographic, financial, and relational predictors of financial decision process and outcome in farm family business couples. *The Journal of the FRHD and FERM Divisions of the AAFCS* 3, 9-19.
- Danes, S.M. & Rettig, K.D.(1993). Farm wives' business and household decision involvement in times of economic crisi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1-3, 307-333.
- Gills, Dong-sook Shin(1999). Rural women and triple exploitation in Korean development. London: MacMillan Press Ltd.
- Godwin, D.D., & Scanzoni, J.(1989). Couple consensus during marital joint decision-making: a context, process, outcome model.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943-956.
- Rosenfeld, R.A.(1985). Farm women; work, farm and family in the United States.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